2025 책읽는 동구 **몰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어린이도 환영

도서명 요즘 어린이로 산다는 것
학 교 문지우 선운초 1학년

초등부
최우수상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오랜만에 서울에 사는 사촌 오빠와 여행을 갔다. 엄마랑 아빠랑 친척들과 바닷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난 뒤, 엄마가 근처에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가 있다고 같이 가보자고 했다. 사진으로 보니 강아지풀도 있었고, 바다가 예뻐서 꼭 가보고 싶었다. 고모랑 고모부는 먼저 출발해서 카페로 들어가 계셨고, 나와 오빠, 그리고 사촌 오빠는 우리 차에 함께 타고 이동했다. 주차장에 주차하고 실내로 들어가려는데, 주차 관리 요원이 말했다.

"여기는 노키즈존이에요. 어린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살짝 화가 났다. '왜 나는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 가족 옆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왜 강아지는 들어가도 되는데, 어린이인 나는 들어갈 수 없는지 궁금했다. 엄마에게 이유를 물어봤다. 엄마는 어린이들이 음료를 바닥에 흘리거나 컵을 깨트리고 다치는 일들이 많아서 사장님이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그런데 나는 카페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음료수도 흘리지 않고 잘 마신다. 그리고 한 곳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오빠랑 인형 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어린이 중에는 나처럼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들도 있는데, 무조건 어린이를 들여오지 말라고 하니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생각해 보니 강아지 중에는 어린이 강아지도 있는데, 왜 그 강아지는 되고 사람은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강아지도 나도 똑같이 한번 밖에 살 수 없는 귀한 사람인데 내가 카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하다.

엄마가 먼저 카페에 들어가 있는 고모에게 전화해서 나랑 오빠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고모는 사장님께 아이들이 정말로 들어오면 안 되냐고 여쭤봤다. 사장님은 야외에 들어오는 것은 괜찮지만, 카페 실내로는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기는 아쉬웠다. 그리고 카페 앞에 있는 고양이가 너무 귀여웠다. 그래서 실내로 들어가지 않아도 좋으니, 마당에서라도 놀기로 했다. 강아지랑 고양이랑 사진을 찍었다. 너무 더웠지만, 강아지를 봐서 즐거웠다. 다음번에는 나도 실내에서 시원하게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

그래서 사장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다.

'노키즈존 대신 어린이들은 소중하니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라고 써주시면 안 될까요?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어린이도 환영'이면 저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2025 책읽는 동구 **몰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들개왕>을 읽고

도서명 들개왕
학 교 김현서 조봉초 4학년

초등부
우수상

광주광역시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들개왕에게

안녕? 달아, 너의 이름은 여러 개가 있지만, 나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으로 너를 부르고 싶어.
이번에 너의 이야기가 담긴 <들개왕>이라는 책을 읽었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무섭고 힘이 센 들개들의 싸움 이야기일 거로 생각했는데, 읽다 보니 너의 순수한 마음과 진정한 용기를 배울 수 있어서 너에게 꼭 편지를 쓰고 싶었어.

달아, 너는 들개왕을 만나고 싶어 했지. 그리고 들개왕을 만난 줄 알았는데 진짜 들개왕이 아니었어. 그때 너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 지금까지 믿고 따랐는데 들개왕이 아니었잖아. 그리고 네가 위험한 상황이었던 때와 대장이 너를 버리고 떠났을 때도 기억에 남아. 나였으면 다시는 대장을 찾아가지 않았을 텐데 너는 대장을 다시 찾아갔지. 그리고 대장을 혼쭐내준 장면은 정말 통쾌했어.

너는 위험한 순간에 무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어. 만약 나였다면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 그런데 너는 네가 다치더라도 친구들을 지켜 주려고 했어. 그 모습이 정말 멋지더라.

나는 책을 읽으며 진짜 용기란 힘이 세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 다른 친구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주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이 진짜 용기라고 생각해. 나도 앞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너처럼 용감하게 도와주고 싶어. 나는 너를 보면서 리더의 모습을 배웠어. 무리를 이끄는 리더는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친구들을 챙기고 함께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달아, 나도 우리 반에서 반장이야. 그런데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 항상 고민이었어. 반 친구들과 함께할 때, 네 모습을 떠올리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너와 너의 무리가 하나가 되어 백두대간을 따라 초록 숲으로, 사냥감이 있는 깊은 숲으로 떠나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너는 어디를 가든 좋은 리더가 될 거라 생각했어.
나도 우리 반에서 좋은 반장이 되도록 노력 할게.
항상 행복하길 바래.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 안녕.

2025년 8월 27일
너의 용기를 배우고 싶은,
친구가

2025 책읽는 동구 **몰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작은 배려가 만드는 큰 세상

도서명 요즘 어린이로 산다는 것
학 교 박지유 월봉초 4학년



광주광역시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고 배웠다.

그런데 어린이에게만 "출입 금지"라는 딱지가 붙는다면 그것도 기본권을 지키는 사회일까? 내가 읽은 여러 이야기 중 나는 '노키즈존'에 관한 글이 가장 인상 깊었다. "어린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는 어린이뿐 아니라 함께 다니는 보호자의 기본권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기본권이란 무엇일까? 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뛰어다니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아이와 부딪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든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며 예절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군가 옆에서 알려주고 도와주어야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노키즈존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2년 전, 우리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때였다. 엄마가 게스트하우스 예약했는데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노키즈존이었다.

첫날, 엄마는 우리에게 "어른들 계실 때에는 언니랑 싸우지 말고 조용히 행동하자"라고 하셨다. 그래서 여행 내내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처음엔 불편하고 긴장됐지만 점점 어른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숙소 규칙을 지키면서 방해가 되지 않는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숙소에서 제공해주는 아침밥을 먹은 뒤 스스로 설거지하고 정리를 하며 작은 책임을 다하는 경험이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숙소 사장님께서 "언제든 환영한다"라고 해 주셔서 정말 기뻤다. 언니와 나는 어린이지만 방해가 되지 않고 예절을 지켰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제주도 경험 이후 나는 '어린이라서 안 된다'라는 말이 얼마나 서운한지 그리고 '어린이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다.
물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조금씩 배려하면 제한 없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더 따뜻해진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는 어른에게서 배움을 받고 어른은 어린이에게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른과 어른이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앞으로도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 기본권을 지키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2025 책읽는 동구 **몰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달이처럼 조금 더 단단해진 나

도서명 들개왕
학 교 강유이 교대부초 4학년

초등부 장려상

광주광역시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올해 2월, 3학년 겨울방학에 부모님께서 8일짜리 프랑스 여행을 가겠냐고 나에게 물어보셨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인 줄 알았는데 초등 3학년 이상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신청하면 나 혼자 가야 한다고 하셨다. 책과 영상에서만 보던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가겠다고 대답했는데 오히려 물어보신 부모님들이 당황하는 눈치였다. 엄마 아빠 없이 정말 괜찮겠냐고 몇 번을 물어보시더니 신청해 주셨다.

프랑스로 떠나는 날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엄마는 나와 8일 동안이나 어떻게 떨어져 있냐며, 혼자 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서 내 손을 잡고 엉엉 우셨다. 그런 엄마를 안아드리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라고 말씀드렸고, 아빠는 그런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그래, 우리 딸.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며 웃으면서 보내주셨다.

달이 엄마는 들개의 삶을 지저분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무시한다. 하지만 달이 아빠는 다르다. 달이 아빠는 들개였던 적이 있어서, 들개들의 호기심과 자유로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들개왕을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늘 가지고 있다. 나는 같은 개지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달이의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와 비슷하단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달이는 엄마와 아빠의 생각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했다. 어느 정도 자라 엄마와 떨어져 다른 집에 가게 되었는데, 아파트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외로웠다. 그러다 달이는 우연히 떠돌이 고양이 '빛'을 만나 그 집을 떠나 함께 생활하게 된다. 빛은 거리에서 혼자 살아온 고양이였고, 자유롭지만 늘 혼자 조심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달과 빛은 함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달이와 빛이 함께 떠난 길은 그냥 재미있는 여행은 아니었다. 먹을 것을 찾고, 추위를 피하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다녀야 하는 살아남기 위한 모험이었다. 달이는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무섭고 힘들었지만, 빛과 함께하면서 점점 용기를 내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었다. 달과 빛이 함께 어려움을 헤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친구는 힘들 때 서로를 도와주는 사이라는 걸 느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편안하고 안전한 집에 있는 것이 더 나았을텐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다.

빛이 사고로 죽고 난 뒤, 달이는 슬퍼하며 혼자 남게 되었지만, 그동안 빛과 함께한 시간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달이는 들개왕을 찾아가 들개 무리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지만, 알고 보니 그 들개왕은 다른 들개들을 속이고 혼자만 편하게 지내고 있었다. 다른 들개들은 들개왕을 의심하긴 했지만 행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달이는 지지 않고, 진짜 들개의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직접 행동하며 무리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가 된다. 달이는 점점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개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진짜 들개왕을 찾아다니지 않는 진정한 들개의 삶을 살아간다.

들개왕을 다 읽고 나니 프랑스 캠프를 다녀온 뒤 전보다 서툴기는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일들도 더 많아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도 전보다 더 당당해진 내 모습이 떠올랐다. 달이의 이야기는 자유, 책임, 그리고 진짜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 주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안전한 집에서 편안하게만 지내는 것도 좋지만 달이처럼 사서 고생이더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스스로 결정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나는 이제 놓치지 않을 거다.

2025 책읽는 동구 **몰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달을 본받고 싶은 나

도서명 들개왕
학 교 이서준 빛여울초 5학년

초등부 장려상

광주광역시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내가 『들개왕』이라는 책을 접하게 된 계기는 평소에 동물에 관심도 많이 있고 또 이모가 좋은 책이니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책을 읽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책은 들개가 된 '달'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달이 성장하면서 겪는 모험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주요 인물인 달은 호기심이 많았다. 달은 들개 아빠와 진돗개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빠는 항상 달에게 '들개왕'에 대한 전설을 들려주며 주었고 그래서 달은 언제나 들개왕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러다 아빠가 갑자기 사라지고, 달은 결국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버려지게 된다. 그날 밤에 달은 검정고양이 `빛'을 만나게 되고 빛은 달이에게 찾아와 떠돌이로 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본다. 달은 가끔은 떠돌이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검정고양이는 달에게 멋진 사냥꾼이 될 것 이라고 했다. 달은 아빠와 달리 자신만의 방식, 세상으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달은 사람의 보호를 거절하고 자유로운 들개로 자신만의 삶을 찾기 위해 야생으로 떠났다.

책을 읽는 중간중간 라이언킹에 나오는 아기사자 심바가 생각나기도 했다. 달이의 모습이 심바가 주변 친구들의 도움과 격려로 점점 라이언킹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과 비슷하고 닮은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달 옆에 항상 같이 있어주던 검정고양이가 달을 구하기 위해 죽는 부분이었다. 빛은 달이 훌륭한 사냥꾼이 될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고, 달에게 무서운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도 알려주며 항상 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런 달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서 달을 구하고 이제 너는 훌륭한 사냥꾼 이라며 격려하는 모습이 감동이었다.

나도 달처럼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용감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달의 아빠처럼 끈기 있게 뭐든 포기하지 않고 되지 않을 것 같다라도 일단 시도하고 노력하고 살아야겠다는 것 깨달았다. 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나의 생각과 느낌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렇게 해 보겠다는 다짐했다.

2025 책읽는 동구 **몰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누구의 노래도 아닌 나의 노래를 찾아서

도서명 들개왕
학 교 송시현 신암초 4학년

초등부 장려상

광주광역시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동물원 우리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얼룩말을 봤을 때. 반려동물 가게 유리 칸막이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아기 강아지를 봤을 때.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 있어야만 했을 때.

온 몸이 어떤 기분으로 가득 차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다.
답답하고 허전하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 고민이 되고, 그래서 막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감정. 사람들의 집에서 길러지던 달의 기분이 그때의 내 기분과 비슷했을까?

달은 길들여진 진돗개인 어머니와 자유로운 들개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푸른반점을 가진 들개다. 편안한 잠자리와 든든한 먹이보다는 들개왕을 만난다는 꿈을 이루는게 더 중요했던 아버지가 집을 떠나고, 달은 새로운 주인과 생활하게 된다. 달은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들개왕을 만나고 싶어 말 잘 듣는 착한 강아지가 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빛이라는 검은 고양이를 만나게 되어서 떠돌이로 살아가는 것을 결심하게 되는데 나는 그런 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도전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누구나 그 기회를 잡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알려준 방법이나 제안을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다가 시도조차 못 해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검은 고양이 빛과 함께 떠돌이 개가 되었던 달은 죽는게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서 사는 건 편안하다. 그런데 울타리 밖으로 나와 자유를 얻게 되면 배고프고 두렵고 위험한 일 투성이 된다. 그런데도 자유를 꿈꾸는 달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힘들고 무섭지 않을까? 나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다. 달은 나와 다르게 끝까지 자유로운 떠돌이가 되기로 하고 빛과 함께 한다. 내가 가장 슬펐던 장면은 빛과 달이 결국 헤어지는 부분이었다. 달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던 빛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시골길 차도에서 본 적 있었던 죽은 고양이가 떠올랐다. 고양이가 밤이 될 때까지 그렇게 도로에 누워있을 걸 생각하면서 무섭고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 달은 혼자가 되었지만'넌 훌륭한 사냥꾼이야.'라고 빛이 달에게 남겨준 마지막 말이 달을 더 훌륭한 들개가 되게 오래오래 도와줬을 것이다.

빛과 헤어진 달은 들개 무리 속에서 생활하면서 힘세고 의젓한 들개가 된다. 그리고 들개왕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들개는 달이 기다렸던 들개왕이 아니었고 달은 들개 친구들과 깊은 숲 속으로 길을 떠난다.

나는 친구들을 데리고 숲 속으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달이 들개왕인 것만 같았다. 초등학생이 되어서 학급 반장 선거를 하면서 리더의 미덕이 무엇인지 배웠다. 왕도 반장과 비슷하지 않을까? 친구들을 배려하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고 힘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달은 잘못된 일에는 용기있게 맞서서 싸우고 새끼 들개들을 배려해주었다. 대장을 잃어버린 들개들을 가족처럼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달이야말로 들개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까? 달이 편안한 집을 뛰쳐나와 매일 만나고 싶어했던 들개왕이 달이 자신이었다고 생각하니 놀라고 감동적이었다. 오랫동안 꿈꾸던 걸 이뤄낸 그런 기분이 들 것 같다.

어른이 되면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달처럼 위험함도 용기 있게 이겨내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을까? 많이 무서울 것 같다. 아직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많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나도 달처럼 용감하게 길을 나서고 싶다. 그리고 그때는 나도 달처럼 다른 누구의 노래가 아닌 나만의 노래를 멋지게 부르고 싶다.

2025 책읽는 동구 **풀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꿈을 걷는 소녀>를 읽고

도서명 꿈을 걷는 소녀
학 교 한정아 각화중 1학년

중등부
최우수상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나는 가끔 아주 생생한 꿈을 꾼다. 마치 현실처럼 느껴져서 눈을 떴을 때도 꿈속 감정이 오래 남아 있을 정도다. 『꿈을 걷는 소녀』를 읽으면서, 나는 문득 지금까지 꿨던 꿈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려 했던 것인지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이 책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꿈이라는 공간을 통해 마음속 깊은 상처와 마주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주인공 '새별이'는 동생의 사고가 자신의 실수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 그로 인해 엄마와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진다. 나 같아도 그런 죄책감에 갇히면 매일이 괴로웠을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별이에게 이상한 꿈이 찾아온다. 그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억 속을 걷는 진짜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꿈이라고만 생각되었지만, 그 꿈들은 점점 새별이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특히 새별이가 엄마의 꿈속을 걷게 되는 장면은 너무 인상적이었다. 엄마도 한때는 새별이처럼 아픈 기억을 안고 외롭게 견뎌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때 새별이는 비로소 엄마의 진심을 느끼게 된다. "엄마는 항상 강한 줄만 알았는데, 엄마도 나처럼 아프고, 슬프고, 무서웠던 적이 있었구나." 그 감정이 글자로만 남지 않고 내 마음에도 깊게 스며졌다.

책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새별이가 동생의 사고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오랜 시간 자신을 가두고 괴로워하던 새별이에게 그 깨달음은 진정한 전환점이었을 것이다. 나도 가끔은 내가 하지 않은 일에도 괜히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혹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같은 생각은 나를 점점 어두운 곳으로 끌고 들어간다. 새별이처럼 용기 내어 그 감정과 마주하고,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

무엇보다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단순히 새별이의 상처 치유만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까지 함께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별이는 꿈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큰 사고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깊은 아픔을 간직한 이들의 기억을 보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떠올린다. 나는 그 부분에서 한참을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혹시 내 주변에도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머릿속에는 꿈 장면들이 오래 남았다. "지금 내가 꾸는 꿈들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하고 자꾸 생각했다. 혹시 내 마음 한켠에 덜어내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어서 그런 꿈을 꾼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더 이해하라는 신호일까?

『꿈을 걷는 소녀』는 꿈이라는 특별한 소재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상처를 이해하게 하고, 서로를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이 이야기는 나에게도 조용히 말을 걸어주었다. 앞으로 내가 꿀 꿈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어떤 기억을 보여줄까? 이제는 그 꿈들이 조금 두렵지 않다. 오히려 나를 더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더 깊이 공감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며 나도 새별이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진짜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평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새별이가 점점 진실에 다가가면서 엄마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었다. 나는 평소에 엄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나도 엄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또, 새별이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은 내 모습과도 닮았다. 나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괜히 혼자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건 용기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꿈을 걷는 소녀』는 단순히 재미있는 소설이 아니다. 가족의 진심과 마음을 이해하는 따뜻한 이야기다. 읽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고, 누군가의 기억에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5 책읽는 동구 **플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바라 볼 수 있는 힘

도서명 너를 위한 B컷
학 교 김윤재 조대부중 1학년

중고등부 우수상

광주광역시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작년 겨울부터 올해 6월달까지의 시간은 그야말로 혼돈의 날들이었다. 누군가의 주도로 편집된 듯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았다. 방송과 신문사에서는 각자 자기들의 취재한 내용들이 맞다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바쁘고, 각종 SNS에서는 거짓인지 진실인지 모를 논란거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었다.

사실 처음 그 내용을 접했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정치는 어른들 세계의 이야기라고만 여겼었고, 그것들이 내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별로 고민한 적이 없었으니 말이다.'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시간이 지나면 또 조용해지겠지... 그리고 고학력에 신사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그러고 보니 그때의 나의 모습은 학교에서 선망의 대상, <포커리스> 4인방을 바라보던 이 책의 주인공 선우와 닮아 있었던 것 같다. 겉으로 보이는 반듯함만 믿고, 괜찮겠지 여긴 선우의 무신경한 모습과 말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분위기는 심각해져 갔다.'이건 아닌 것 같은데?'의아함을 갖게 하는 소식들이 심심찮게 보도 되었고,'이건 진짜 역사 왜곡아니야?'하는 강한 의심이 들 때 쯤에는 이미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만의 입맛대로 편집된 내용만이 참일 뿐, 그 외의 내용들은 빠르게 지워져 갔다. 그리고 그 빈 칸에는 자신들이 추종하는 인물에 대한 기사와 상대방을 비난하는 편집된 영상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도 선우의 모습이 겹쳐져 있었다. 진실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편집해 놓은 영상에 열광하는 구독자 수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원본 영상의 불안 요소들을 모두 B컷 장면으로 여겨 거침없이 잘라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A컷 장면들만 이어 붙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영상들로만 업로드했다. 내 손에 들려있던 작은 스마트폰 속 SNS의 세상처럼 선우가 만든 영상들은 사람들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A컷 장면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선우도 <포커리스>안에서의 정후의 사정을 알게 된 후에는 당시에는 불필요하다고 잘라냈던 B컷 영상들을 모아 다시 편집하기 시작했다. 버리고 감추었던 <포커리스>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했고,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B컷 영상이라 여기며 잘라내졌던 정후의 오래된 고통의 시간에 대한 미안함이기도 했다.

나도 그랬었다. 언론매체에서 내가 살고 있는 광주의 역사를 왜곡 하면서 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강요하는 그들을 본 순간, 선우와 같은 부끄러움을 느꼈다.'나역시 저들이 편집해 놓은 A컷으로만 그들을 믿으며 살고 있었구나. 저들이 잘라낸 B컷 영상 속의 진실들을 의심해 보지도 않고, 그저 군중들이 가는 대로 휩쓸려 가고 있었구나'그 순간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아파했던 역사들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내가 창피해졌고, 그 창피함은 나를 진실을 사수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는 거리로 이끌어 냈다. 더이상 그들이 하는 궤변들을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 바꿔 주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내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다! 결코 방관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기야 나 한사람이 그 곳에 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인다면 거짓을 이길 큰 힘을 발휘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힘이 아닐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순간 빛나는 것들에 가려져 있는 것일 뿐, 그들의 삶도 함께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삶을 위해 잘려 나가야 할 존재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잘려나간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A컷 영상들을 보게 되겠지만, 이제는 이 영상을 위해 잘려 나갔을 B컷 영상도 감안하며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다. B컷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우리의 모습은 수많은 B컷 속에 담겨져 있을 지도 모른다. A컷이든 B컷 이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성만 잘 잡혀 있다면, 진실이 왜곡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무엇을 보든,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바라 볼 수 있는 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꼭 갖춰져야 할 감각이 아닐까?

2025 책읽는 동구 **플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평행세계가 아닌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세계

도서명 쉬프팅
학 교 최예준 장수중 2학년

중고등부 우수상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또 다른 세계에 나와 똑같지만 전혀 다른 내가 있다면 어떨까? 나는 마블 영화<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보면서 평행세계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같은 이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지만, 세계관과 환경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성격과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친구들과 독서토론을 하고 있다. 매월 1권의 책을 정해 매주 토요일 청소년복합 공간에 모여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책수다' 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한 친구가 평행세계를 배경으로, 학교가 사라진 세상을 그린 소설이 재미있을 것 같다며 《쉬프팅》을 추천했다.

나에게 '학교'는 복잡한 의미를 가진다. '학교=친구, 학교=힘듦, 학교=급식'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방학이 끝나면 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방학을 알차게 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학교에 가기 싫은 마음이 더 컸다. 엄마는 방학이 사라져야 한다고 하지만, 나에게 방학은 꼭 필요한 쉼의 시간이다. 친구와 놀 수 있고 배우는 것도 있어 유익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떠나고 싶은 공간이기도 하다.
나와 다르게 소설 속 인물 도율에게 학교는 지옥 같은 곳이다. 그는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는 아이였다. 그것도 단 한 번이 아닌,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이었다. 매일 같은 친구를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감옥 같은 현실이었다.
반대로 로아에게 학교는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로아는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했기 때문이다.
"아니 힘들다라도 해야만 했다. 집에서 숨 쉴 수 없다면 어디든 숨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했다. 로아는 학교에서 상냥하고 무엇이든 잘하는 나로아를 기꺼이 연기했다. 노력의 결과로 로아는 학교에서만큼은 사나운 입과 손발을 잊을 수 있었다." (p.21)
이 부분을 읽을 때 내 마음도 무거웠다. 나는 단지 기분이 내키지 않아 하기 싫은 일을 투정 부리듯 거부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로아와 도율에게 학교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나에게 학교는 귀찮지만 다녀오면 뿌듯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율에게는 지옥, 로아에게는 집 대신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책을 읽으면 나는 언제나 '숨은 그림'을 찾는다.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 같아도 그 안에는 늘 큰 그림이 숨어 있다. 도율과 로아의 삶에는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준다. 과장된 표현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끊이지 않는다. 입양 아동을 방임하고 폭행해 죽게 만든 정인이 사건, 굶기고 때려 또래보다 작고 말라버린 가을이 사건 등 매년 2~3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다.
바로 전에 읽은 책 《비스킷》 역시 가정폭력으로 내면이 부서진 아이들을 다룬 이야기였다. 존재조차 사라져 버리는 '비스킷'이 되지 않기 위해, 로아는 학교에서 완벽한 아이로 연기하며 자신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것이 더욱 안타까웠다.
나는 생각했다. 혹시 우리도 로아처럼, 도율이가 괴롭힘을 당할 때 외면한 것은 아닐까? 자신을 지탱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주변에도 힘든 친구가 있는데 나는 외면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내 생활만 했던 것은 아닌지 실패보았다. 자세히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난 참 행복하게 생활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소설에서 로아와 도율은 '엘리베이터 쉬프팅'이라는 도시 괴담 속 사건을 통해 평행세계로 떨어진다. 그곳에서 그들은 또 다른 자신을 만나고,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나간다. 그 세계에는 학교 대신 '디마이'라는 공간이 있었다. 선생님이 아니라 매니저가 있고, 경제적 신분에 따라 사람을 나누었다. '논디마'는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아동노동과 폭력이 합법처럼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도율은 그곳에서 특권을 누리며 만족했지만, 로아는 여전히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평행세계는 원세계와 다르게 교육이 사라진 공간이었다. 그 결과 인권은 더욱 무너졌다. 코로나 시기에 원격수업을 하며 학교에 가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학교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디마이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육과 학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결국 로아는 깨닫는다.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은 학교 그 자체가 아니었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과 있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사랑했던 거야." (p.207)
그래서 로아는 원래 세계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다.

나는 원래 '만약에'라는 상상을 좋아했다. 또 다른 환경이라면, 또 다른 내가 된다면 하는 공상 말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굳이 평행세계를 경험하지 않아도, 파랑새처럼 나의 곁에도 이미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공간.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곳. 그곳이 학교이고 집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많은 아이들이 더 이상 평행세계를 꿈꾸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된다.
학교와 집, 그 어느 곳에서도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믿고 숨 쉴 수 있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란다.

2025 책읽는 동구 **플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도서명 쉬프팅
학 교 이시은 정광중 1학년



광주광역시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범유진 작가의 소설 쉬프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불안함과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을 '쉬프팅'이라는 신기한 방법으로 잘 보여준다. 이 소설은 단순히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과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게 한다. 낯선 다른 세상으로 가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듣던 도시 괴담처럼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독자가 현실과 상상을 오가며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평소에는 잘 몰랐던 일상과 선택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소설 속'쉬프팅'은 학교 생활 때문에 힘들거나 집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 로아와 도율에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나온다. 특히 주인공 로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많다. 클라이밍 선수로 열심히 노력하는 강한 모습 뒤에는 집에서 겪는 아픈 현실이 숨겨져 있다. 로아는 흔히 말하는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은 없다"는 생각과 달리, 오히려 학교를 마음이 편한 곳으로 느끼면서도 씁쓸함과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로아의 모습은 단순히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하는 청소년의 마음을 넘어서, 학교가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작가는"학교가 없는 세상"이라는 기발한 상상을 통해 학교의 진짜 모습과 다른 교육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학교를 싫어하는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학교가 사라진 세상이 정말로"완벽한 세상"일까 하는 물음이 담겨 있다. 소설 속에서 학교가 살아진 후 인물들이 겪는 혼란과 여러 문제들을 통해, 학교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다. 학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여러 문제를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곳이기도 하다. '쉬프팅'은 학교가 없으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개인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두 세상의 로아와 도율은 각자의 세상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다. 소설은 쉬프팅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지 아닌지 정확히 보여주지 않고 끝난다. 그래서 나도 결말을 직접 상상하게 되었고, 선택의 무게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며"다른 세계에 있는 또 다른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평소에 자주 듣던 도시 괴담을 책으로 읽으니, 상상력이 더해져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항상 그대로일 거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만약 정말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떤 경험을 하게될까? 오랫동안 학교가 없는 세상을 바라던 나조차, 이런 상상의 세계를 마주하니 학교가 몹특 그리워질 것 같았다.

비록 책의 결말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원래 세상으로 돌아올 것 같은 암시로 끝나지만, 만약 내가 결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로아가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소설 속 두 세상의 로아들이 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예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산다면 굳이 원래 세상으로 되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는데 이미 너무 많이 변해버린 세상으로 억지로 돌아가 고통받게 하고싶지 않다.

내가 상상한 결말에서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했던 도율이는 조금 안쓰럽다. 하지만 처음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차주혁의 의식을 잃게 만들고'논디마'(새 세상에서 대우를 못받는 사람)가 될 위기에 처하자 말을 바꾸고 로아를 잡으려 하는 모습은 너무 이기적이고 염치없게 느껴졌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보였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책임지지 않고 로아를 엘리베이터로 잡아가는 모습은 비겁했다. 이 부분에서 나는 문득"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얼마나 이기적일까?"라는 질문을 떠올렸다. 도율의 행동은 진정한 자유가 단순히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책임감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쉬프팅'은 이렇게'다른 세상'이라는 상상 속 이야기를 통해 여러 질문을 던진다. 과연'완벽한 세상'이 존재할까? 인물들은 학교폭력, 집안 문제 등 현실 속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쉬프팅'이라는 알 수 없는 세상으로 들어간다. 이는 요즘 청소년들이 현실의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가상현실이나 다른 도피처를 찾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지만 작가는 현실의 고통을 좋게 포장하거나 쉽게 도피할 수 있는곳을 주지 않는다."학교가 없는 세상"이라는 설정으로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 날카롭게 보여준다. 겉으로 보기엔 이상적인 곳처럼 보여도, 학교가 없는 세상에서 인물들이 겪는 혼란과 문제들은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결론적으로'쉬프팅'은 단순한 도시 괴담이나 상상 이야기만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속 깊은 불안과 희망을 잘 이해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이 옳은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한다. 독서를 통해 스스로 삶과 선택을 되돌아보게 만들며, 알 수 없는 세상이 던지는 질문 속에서 어떤'나'를 찾아 어떤'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힘을 가진 작품이다.

2025 책읽는 동구 **플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B컷이 말해준 진실

도서명 너를위한 B컷
학 교 채호림 장수중 2학년

중고등부
장려상

광주광역시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요즘은 친구들과 그냥 대화만 나누는 게 아니다. 사소한 일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일상을 공유한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늘 멋진 A컷만 가득하다. 조금이라도 어색하거나 못생기고 웃긴 모습은 바로 지워버린다. 나도 그렇다. 그런데 이 책 「너를 위한 B컷」은 그런 버려진 순간들 속에 오히려 진짜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제목부터 마음에 끌렸다. '왜 하필 B컷이지?' 늘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A컷인데, B컷에 담겨진 이야기가 궁금했다.

주인공 선우는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영상을 만들어 선물한 걸 계기로 영상 편집을 시작했다. 혼자 배우며 점점 실력이 늘었고 나중에는 학교 생활에서도 영상 편집이 도움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반에서 인싸인 서빈이가 다가와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 편집을 부탁했다. 평소 튀는 것을 싫어하던 선우는 망설였지만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 장면이 참 공감됐다. 나도 학교에서 존재감이 없이 조용한 편인데, 만약 서빈이처럼 인기 많은 친구가 먼저 말을 걸고 같이 뭘 하자고 하면 솔직히 기분이 좋을 것 같다. 괜히 설레고, 그 무리에 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다. 선우가 서빈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왠지 내 마음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선우는 서빈의 장점만 살려 멋진 영상을 만들었고 그 영상은 인기를 끌었다. 영상이 인기가 올라갈수록 선우도 포카리스 일상브이로그 영상 편집에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영상 속 정후의 모습은 자꾸 마음에 걸렸다. 정후는 포카리스라는 인싸 무리에 속해 있었지만, 늘 말이 없고 표정이 어두웠다. 선우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정후가 실제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선우는 이미 편집할 때 그걸 느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아예 몰랐던 게 아니라 그냥 모른척, 눈 감고 넘긴 거였다.

이때 선우는 아빠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빠는 예전에 다니던 대기업에서 내부고발을 했지만, 결국 회사를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지금은 공항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선우가 아빠에게 "그때 후회하지 않았어?"라고 묻자, 아빠는 "수백 번도 후회했어"라고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엄마와 너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부끄러웠을 거야. 아빠는 그게 제일 싫었어"..... 아빠는 '부끄러움'이란 감정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고 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꽤 무거웠다. 겉으로는 멋지고 잘 사는 게 중요해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결국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됐다. 아무리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도 내 마음만큼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크게 와 닿았다.

그래서 선우는 이번엔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넘어가면 더 편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후가 힘들어하던 장면을 되살려 영상을 다시 편집하고 포카리스 친구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일까지 보냈다. 이 장면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 누군가의 아픔을 그냥 넘기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 느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나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성적이 괜찮은편이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늘 있다. 친구들 앞에서는 신경 안 쓰는 척하지만, 사실은 시험 점수에 늘 신경이 쓰이고 실수한 걸 들킬까 봐 걱정할 때가 많다. 그래서 늘 A컷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았다. 완벽한 순간만으로는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실수하고, 부족하고, 흔들리는 모습까지 모두가 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친구들을 볼 때도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속에 숨겨진 마음까지 살펴보고 싶다. 정후처럼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사실은 힘든 친구가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럴 때 선우처럼 작은 용기라도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너를 위한 B컷」은 영상과 편집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다. 버려진 B컷 속에 진짜 인생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이 책의 메시지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다. 웃기고 어설프고 부족한 순간까지도 다 내 이야기이고, 언젠가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B컷도 받아들이고 친구들의 B컷도 함께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2025 책읽는 동구 **플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삶’이라는 책에 ‘나’라는 주인공

도서명 쉬프팅
학 교 이서현 대자중 1학년

중고등부 장려상

광주광역시동구

민문도시 광주동구

어렸을 때 저는 여느 학생들과 다름없이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6학년, 학원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나니 머릿속이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새로 들어온 신간 중, 겉표지가 제 취향과 너무 닮은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쉬프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처음 책을 읽었을 땐, 제 고민은 학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 년이 흐른 지금 학교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진 제가 도서관으로 도망치듯이 와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 이 책에 대한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점이 지금의 저에게는 더욱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쉬프팅》입니다. 제가 이 독후감을 쓰게 되어 이 책을 다시 읽었을 때 가장 궁금했던 제목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범유진 작가는 초등학교 시절에 돌계단 몇 개를 밟으면 귀신이 있는 세계로 간다는 게단 괴담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다른 세계로 가는 괴담이 세대마다 다르게 전해진다는 점이 흥미로워 기억해두었다가 그중 엘리베이터로 평행세계로 이동한다는 도시 전설이 가장 인상 깊어 소설의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로아와 도율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평행세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도율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던 중 선생님이 해결해줄 거라 믿고 찾아가지만, 선생님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주혁이 그냥 장난친 것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해서 도율이 충동적으로 선생님의 과도를 집어 들고 선생님의 손목을 다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강렬했던 이유는 소설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도율은 어른에게 처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라는 문구입니다. 도율에게 선생님은 마지막의 믿음으로 기대어 본 존재였고, 그 믿음이 깨지면서 이성이 무너졌다는 절망이 느껴져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었던 6학년, 그때 정말 힘들었던 제게 마지막 믿음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교가 좋았고, 도율보다도 노아의 입장에 더 공감이 갔었습니다. 학교란 공간이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노아의 생각이 제에겐 더 힘빈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일 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책을 다시 읽으니 느껴지는 감정이 너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로아보다 도율에게 더 공감이 갑니다. 처음에는 노아의 입장에서 더 많은 고민과 고통을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제는 도율처럼 학교라는 곳을 피해버리고 싶어진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게 되면서 상황과 저의 감정에 의해 책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책도 이렇게 여러 번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도율이 현실 세계에서 당한 설움을 잊지 못해 쉬프팅을 해서 온 다른 평행세계에서도 복수한다는 것입니다. 로아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머물고 싶던 곳은 학교가 아니었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사랑했던 거야!"라고요. 로아는 현실 세계에서 물론 힘들었지만, 평행세계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변화를 택합니다. 그렇지만 도율은 복수를 선택합니다. 책에서 도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넌 모르겠지. 난 널 용서 못 해. 이쪽 세계의 네가 갚아야 해!" 쉬프팅을 해 온 세계의 주혁은 더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지만, 도율은 현실 세계의 주혁이 도율에게 했던 짓을 쉬프팅을 해 온 세계의 주혁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그런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도율이 겪은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상처로 남아서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도율이 복수라는 선택이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복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 습니다. 물론 복수를 통해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치유로 이어 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도율에게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 진정한 용서를 배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로아와 도율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로아는 변화를 선택하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가능성을 찾아 나갔습니다. 로아는 평행세계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긍정적 인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도율은 과거에 묶여 계속해서 복수와 앙갚음을 좇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결국 자신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것 같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다면, 그가 겪은 고통도 조금은 더 개벽워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겪은 고통을 계속 가슴에 새기며 복수할 생각만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진정한 용서와 나의 변화가 나의 앞길을 활짝 열어준다는 교훈을 얻고 친구들을 비로소 용서하게 되고 그 친구들에게 잘하지 못 해준 만큼 더 잘해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행동해 나의 마음의 짐을 놓고 홀가분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책 속 인물들이 겪는 고통에 집중했지만, 점점 그들의 고통과 선택들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이 제게 준 가장 큰 교훈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마음먹는 대로 나의 기분과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내 삶이라는 소설을 채워나가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삶은 한 편의 책이다, 나라는 주인공이 채워나가는'

2025 책읽는 동구 **블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나를 만든 시간들과의 대화

도서명 어떤 어른
지 역 김태영 대전 (중구)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몸속 깊은 곳, 오래된 서랍이 하나 있는 듯하다. 가끔 삶이 소란스러워지는 밤이면, 그 서랍이 저 혼자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기억의 조각들—빛바랜 유년의 오후, 뭐태롭게 반짝이던 청춘의 유리 파편, 그리고 무더진 줄로만 알았던 중년의 어느 날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다. 김소영 작가의 [어떤 어른]을 읽는 내내, 나는 그 서랍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잊고 있던 내 시간의 유물들을 하나씩 꺼내어 가만히 쓸어보는 기분이었다. 책이 나직이 건네는 '어떤 어른'이라는 물음은, 곧게 답아두었던 그 서랍의 녹슨 경첩을 열어젖히는, 아프지만 다정한 손길과도 같았다.

서랍의 가장 밑바닥에는, 잔뜩 겁을 먹은 채 웅크린 아이가 있었다. 세상의 모든 침전은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햇살이었고, 무심한 눈길 한 번은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찬 서리였다. 나는 어른이 되기 위해 그 아이의 몸음소리를 애써 외면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책임감이라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이성이라는 반듯한 가면을 쓰고, 감정의 온도를 억지로 낮추며, 나는 누구보다 '어른스러운' 어른이 되어갔다.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맡은 배역에 충실하기 위해, 본장실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맨얼굴. 하지만 책장을 넘기는 손끝에서, 그 아이의 희미한 흐느낌이 묻어났다. "그때, 너는 왜 아무 말도 못 했니?", "네 마음은 정말 괜찮았던 거니?" 묵살했던 질문들이 되살아나 귓가에 속삭였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의 아이를 시간 속에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단 한 사람이 되어주는 일임을. 나의 서툰 위로가 그 아이에겐 최초의 담요가 되어주고, 나의 미숙한 격려가 그 아이에겐 첫 번째 응원가가 되어주는 것. 알록진 뱀을 닦아주고, 넘어진 무릎의 흙을 털어주며, 마침내 세상의 빛 속으로 함께 걸어 나갈 용기를 내는 일임을 말이다.

청춘이라는 시절은 유독 날카롭게 깨진 거울 조각들을 닮았다. 스무 살의 나는 그 조각들로 세상을 비추며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 오만했다. 실패는 더 높은 곳으로 날기 위한 날갯짓이라 믿었고, 상처는 영웅의 훈장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마흔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고 앉는 지금의 나는 안다. 삶이란 때로 아무런 이정표도 없는 사막이며, 내가 가진 지도는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그 사막에서 수없이 방황을 겪었고, '성공'이라는 이름의 신기루를 향해 달리다 뜨거운 모래에 무릎을 꿇었다. 세상이 정해놓은 정상의 잣발을 향해 솜 가쁜게 달리던 시절, 나는 내 발밑에 피어난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 책은 바로 그 절망과 조급함의 순간들을 가만히 비춘다.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도리어 우리를 '어떤 나'로도 살지 못하게 묶아맸다고. 우리는 정답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가 아니라, 그저 자기만의 보폭으로 꿀꿀을 들여다보며 걷는 산책자여야 했다. 남들이 선망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더디고 구불구불할지라도, 내가 남긴 서툰 발자국들이 모여 나의 길이 된다는 것을. 나는 참으로 오랜 방황 끝에야 어렴풋이 받아들이고 있다. 패배의 쓴맛이 삶의 미각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하는지, 그늘의 서늘함이 존재의 깊이를 얼마나 더해주는지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 나를 만든 모든 시간과 화해하려 한다. 푸른 이상만을 좇던 스무 살의 나에게, 현실의 벽 앞에서 초라했던 서른 살의 나에게,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을 지나온 지금의 내가 나직이 말을 건넨다. '너의 무모함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주저앉지 않았고, 너의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타인의 슬픔을 알게 되었다'고. 과거는 수정해야 할 오답 노트가 아니라, 나라는 문장을 완성해 온 유일한 문법이었다. 시간의 강물은 상처를 씻어낼 뿐만 아니라, 날카롭던 조약돌을 둥글게 빛어 보석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배운다. 과거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날카로운 판결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온전히 살아내느라 애썼다는 따뜻한 긍정뿐이다. 과거는 도려내야 할 흉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든 굳은살이었다. 시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의 깊이를 더해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홀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나라는 나무에 새겨진 나이테는, 결국 타인이라는 햇살과 비바람이 함께 만든 흔적이다. 부모님의 깊은 주름 속에서, 아이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오랜 친구의 변함없는 눈빛 속에서 나는 비로소 '어른'이라는 단어의 무게와 온기를 동시에 느낀다. 그들의 시간 속에서 나는 여전히 미숙한 아이이자, 서툰 어른이며, 길을 잃는 동행자다. 나를 만든 시간들과의 대화는 결국 나를 둘러싼 세상과의 대화로 이어진다. 내 안의 아이를 보듬는 손길로 타인의 여린 마음을 어루만지고, 나의 방황을 이해하는 눈빛으로 타인의 흔들림을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어른'의 모습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결국 '어떤 어른'이라는 질문에 하나의 정답은 없을 것이다. 책이 말하듯, 우리는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질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이다. 삶은 정해진 목적지를 향한 순례가 아니라,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을 끌어안는 영원한 방랑에 가깝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어른이라는 신기루를 좇지 않기로 한다. 대신 흔들리는 걸음걸음마다 깊가의 작은 풀꽃과 눈 맞추고,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조차 나의 여정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이려 한다. 내 안의 모든 시간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가장 빛나던 순간의 나뿐만 아니라, 가장 부끄럽고 초라했던 날의 나까지도 지금의 내가 온전히 보듬아주는 일이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다정한 눈빛으로 말을 건네는 그 내밀한 대화 속에서, 비로소 나는 나만의 춤을 추는 '괜찮은 어른'으로 조금씩 익어갈 것이다.

책장을 덮으며, 나는 오래된 서랍 속, 나를 스쳐 간 모든 시간의 풍경들에게 조용히 안부를 묻는다. 책의 마지막 문장이 귓가에 맴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이는 것이다." 그렇다. 유년의 조개껍데기와 청춘의 유리 파편, 중년의 굳은살까지, 그 모든 시간의 퇴적층이 모여 비로소 '나'라는 단 하나의 지도를 완성한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들이 무수히 펼쳐져 있다.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결국 '나'라는 이름의 우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나고, 나는 이제 조금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되물을 수 있게 되었다.

2025 책읽는 동구 **플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K팝을 통해 들여다본 연대와 폭력이 공존하는 시대

도서명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지 역 주수원 전남 (나주)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중「세상 모든 바다」작품은 K-팝이라는 대중문화 현상을 통해 글로벌 연대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조명한다. '세상 모든 바다'라는 걸 그룹과 그들의 팬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문화적 연대의 가능성과 그 취약성을 동시에 탐구한다.

아이돌 팬덤의 사회적 실천

'세상 모든 바다' 걸그룹의 프로듀서가 추구하는 '공존'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넘어선다. 6개의 대륙 11곳의 해변을 담은 뮤직비디오를 통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은, 대중문화가 가진 사회적 책임감과 영향력에 대한 자각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러한 메시지에 대한 팬들의 능동적 반응이다. 팬들은 걸그룹의 사회적 메시지나 긍정적인 가치관에 공감하고 지지한다. 샌프란시스코의 성소수자 행진부터 홍콩 코즈웨이베이의 민주화 시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쇼츠를 찍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팬들까지. 이들의 모습은 문화가 가진 초국가적 연결 고리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팬들의 관심이 단순한 소비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현대 팬덤 문화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대중문화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

부르디외의 문화매개자 이론과 팬덤의 한계

이와 관련해 눈여겨 볼 이론이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문화매개 활동론이다. 그는 새로운 문화매개자들이 기존 질서에 대항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기존 관념의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대중의 취향을 이끌어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K-팝 아이돌도 전형적인 문화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아이돌들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팬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지만, 그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체제에 근본적인 도전을 가하거나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기존 질서 내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의 개선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상업적 성공과 사회적 영향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대중문화의 구조적 한계이기도 하다.

폭력의 현실과 이상의 취약성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서 균열이 발생한다. 작가는 아름다운 연대의 서사에 냉혹한 현실의 찬물을 끼얹는다. 콘서트장 밖에서 벌어지는 테러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다.
"우리들의 평화는 공연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냐"는 테러리스트의 질문은 독자에게도 날카로운 성찰을 요구한다.
이 장면은 작품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 지금까지 구축되어온 희망적인 서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순간은, 문화를 통한 연대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또한 아홉 명의 죽음과 이백여 명의 부상자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폭력은 언제나 연대보다 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다.
특히 소설 속 주인공 '하쿠'가 테러 전에 만난 '영록'이 사망자에 포함되면서, 추상적이던 폭력이 구체적인 개인의 죽음으로 현실화된다. 작가는 하쿠가 영록의 고향 해진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죽음의 무게와 상실의 의미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영록의 죽음과 해진 방문 에피소드는 작가가 제기하고자 하는 핵심적 질문을 구체화한다. 과연 우리의 연대는 추상적 이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 타인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우리의 공감과 연대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연결의 불가피성과 희망의 변증법

작품은 우리에게 질문한다. 불완전하고 취약한 연대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진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시켜나갈 것인가? 폭력과 혐오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도 소통과 연결의 가능성을 믿고 실천할 것인가?
작가가 내리는 결론은 절망적이지 않다. "세상의 모든 바다는 분명 이어져 있다"는 선언은 연결과 연대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한다. 바다를 등지고 아무리 멀리 가려 해도 결국 다시 바다와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는 우리가 고립될 수 없는 존재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폭력과 연대가 공존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연결과 소통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복잡함을 정확히 포착한다. SNS와 글로벌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혐오와 폭력 또한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 문화를 통한 연대가 가능해 보이지만, 그 연대가 얼마나 깊고 지속 가능한지 의문시되는 시대. 작가는 이러한 현실을 팬덤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효과적으로 형상화했다. 작가는 쉬운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독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연대와 공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깊이 사유하도록 만든다.

2025 책읽는 동구 **블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나에게도 축복을 빌어줘

도서명 축복을 비는 마음
지 역 경성현 충북 (음성)

인선 언니, 나 경옥이야.

내가 인선 언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일 거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동안 언니에게 참 고마웠는데, 진짜 내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언니가 처음이었을 거야. 그때 양 사장이 주는 청소 일하다가 언니 처음 만났잖아,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양 사장 욕도 많이 했는데 이제 보면 나에게는 언니를 만나게 해준 은인이야, 아니 언니에게는 나를 만나게 해준 원수라고 해야 할까?

언젠가 한 번 언니랑 술 먹다가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아주 아렸을 때에 보육원에 맡겨져 부모도 모르고 컸다고, 그래서 나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손해 안 보려고 했고 내 것 챙기려 한 것이라고 그래서 나 "싸가지 없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내 사정 누가 알겠어? 나는 어릴 때부터 밥 한 숟가락, 뽀 한 조각이라도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었단 말이야. 늘 배고프고 추웠어.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도 아빠도 아니 그 누구라도 날 위로해 주고 안아줄 사람을 그리워했어,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 종종 주말에 봉사활동이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오는 날에는 치킨이나 피자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보다 내가 더 좋았던 것은 우리랑 같이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한테 더 다정하게 대해 주었고 물론 평소에 우리에게 욕을 한다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았어. 단지 그 '영혼 없다'는 그런 말 알지 딱 그랬거든, 봉사자들이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가식적인 다정함이라도 난 좋았어 그리고 봉사자들이 가지고 오는 싸구려 동정심 일지라도 그런 관심이 난 좋았어. 물론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걸 아주 질색했지만, 난 항상 배고픔이나 추위보다도 사람의 관심, 정 그런 게 더 그리웠던 것 같아. 중학교 때에'결핍'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어서 그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단 말이야.'결핍'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이란 뜻이란 걸 알게 되고 난 입이 딱 벌어졌어, 그렇구나 나에게는 있어야 할 것이 없던 거였구나. 하는 그날 그런 것 있지 말로 설명하기는 힘든데 그냥 봐서 알게 되는 것 있잖아 내가 낳은 자식처럼 아무리 어릴 때 보고 안 보았다고 해도 그냥 보면'아' 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난 항상 결핍 속에 살았고 그걸 채우고 싶어 했던 것 같아 본능적으로.

그때 우리가 언니 차 안에서 했던 말 기억해. 내가 언니에게 "도저히 염두가 나지 않는 집을 청소할 땐 마음이 너무 불행해지지 않느냐"고 물었었지. 그랬더니 언니가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했었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내가 처음으로 결핍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처럼 '아' 하고 감탄을 했어. 이 사람이랑 같이하면 되겠구나 하고 말이야. 난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저주나 악담을 퍼붓는 사람이었지 축복을 빌어본 적은 없었거든,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 오히려 나를 괴란하게 만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다니 난 진짜 언니가 예수님인가 싶더라니까? 언니라면 나를 진짜로 안아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언니가 셈은 좀 흐리니까, 내가 언니의 모자란 이기심을 채워준다면 좋은 팀이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창업을 하자고 언니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 다행히 결과도 좋았지.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양 사장이 맡은 일거리 싸게 해주는 방법으로 조금 조금씩 빼어왔고, 양 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단돈방에다 양 사장 뒷담화 좀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양 사장보다 더 더 바닥에서 영향력이 더 있어 한마디로 힘이 세졌지. 몇 달 전에 양 사장에게 일거리 주면서 같이 점심 먹을 때 내가 일부러 사람 수에 부족하게 음식을 주문했잖아. 옛날에 양 사장이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양 사장이 뻔뻔하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내가 그대로 돌려줬잖아. 내가 조금 먹으니 이것도 충분하다고, 양 사장 아무 말 못 하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 언니도 내 얘기 듣고 한참을 웃었잖아. 내 자랑 같지만 나 진짜 열심히 일했다. 언니가 셈이 흐리니 그냥 넘어가자는 것도 내가 악착같이 받아보고, 대신 남들이 안 하는 곳까지 구석구석 잘 해주니까. 또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심지어 우리 이름 빌려서 같이 영업하자고 해서 그 와 프랜차이즈처럼 하자고 내가 그것 때문에 세금, 법률문제도 다 공부했잖아. 물론 언니가 뒤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고 산업들 오면 다 교육시키고 했으니 가능한 일이었지만, 아무리 영업을 잘 하면 뭐 하겠어 청소 실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까지 될 수 있었겠어?

언니와 창업해서 힘들었지만 일하는 게 재미있었어, 우리 일 키우는 것도 신났었고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했으니까. '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더 이상 버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고 할까.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나의 꿈, 나의 모든 것, 모진 바람 불어와서 내 꿈을 데려갔네'로 시작되는 언니가 좋아했던 노래겠지 나도 언니 때문에 '젊은미소'라는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 노래 가사처럼 내가 모진 바람이 되어 언니의 꿈을 데려갔네.

미안해 언니. 그때 언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놈을 더 이상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더 이상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자만감이 오히려 날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같아. 언니가 나를 나쁜 년이라고 욕해도 좋아, 어쩔 수 없었어, 배 속의 아이와 그 나쁜 놈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면 사랑이겠지, 항상 나에게 지옥만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어 도박만 안 하면 그이도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어쩌겠어 내 아이의 아빠인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는데, 언니도 알잖아 나 부모 없이 살아온 것, 내 아이에게만은 절대로 나 같은 경험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아. 언니가 그렇게 말했는데, 언니한테 정말 미안해. 이 돈 때문에 언니가 고생할 것 알아. 나를 경찰에 신고해도 난 다 이해해. 내가 정말 나쁜 년이야. 계약을 앞두고 중요한 때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그래도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는 언니가 전에 했던 말 때문이야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라는 언니 정말 미안해, 언니한테 몹쓸 짓하고 도망가면서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게 내 욕심만 채우자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참 미안해하지만 난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그게 언니라면 더, 축복을 받아 보고 싶어, 뱃속의 내 아이를 위해서.

언니 잘 있어, 못난 동생 소현이.

광주광역시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성인부 우수상

2025 책읽는 동구 **블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너의 뿌리가 되어 줄게

도서명 어떤 어른
지 역 이현기 광주 (남구)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2018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나의 아저씨> 속 주인공 지안은 동훈이라는 좋은 어른을 만난 이후 인생의 계대한 변곡점을 맞이한다. 부모가 안계준 빚을 떠안고 어린 시절부터 창각장애를 앓는 할머니와 외로이 살아가는 지안은 사람들이 건네는 따스한 목소리에도 마음의 귀를 닫아버린다. 세상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학적인 힘포로 가득했고, 그녀는 지옥같이 위태한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고 버틸 뿐이다. 그런 지안의 곁엔 직장 상사 동훈이 서 있다. 그 역시 내밀한 상처를 남몰래 간직하고 있지만, 지안에게 누구보다, 어쩌면 그녀의 인생 처음으로 따뜻한 어른으로서 존재한다. 동훈과 함께 하는 나날이 켜켜이 쌓일수록, 그와 맞닿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지안이 늘어뜨린 삶의 그림자에도 차츰 볕뉘가 스며든다. 그렇게 지안은 좋은 어른 곁에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

김소영 작가의 <어떤 어른>은 작가의 경험적 사유가 만들어 낸 소박하고도 명료한 언어로'어른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색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책이다. 선정 도서 중 이 책을 고른 계기는 확연했다. 독서 교실을 운영하는 작가의 일상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중학교에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들과 매일같이 무람한 줄다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둘러싼 변화시킬 진정한 교사로서, 다가올 미래의 굳건한 기반을 닦아나갈 좋은 어른으로서의 기록제가 필요했던 참나, 내게 슬며시 손을 내민 책이 <어떤 어른>이다. 책을 읽는 내내 쉽고 명징한 언어의 음표를 이리저리 섞어 감동적인 음색을 만들어 낸 작가의 현란한 지휘에 흠뻑 빠져들고 말았다.

책을 읽던 중 '어린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가올 세상이 달라질 거라는 당연한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64p)는 문장에서 내 정년은 마치 서슬 퍼런 족쇄에 묶인 듯 더 이상 다음 페이지를 향해 나아갈 수 없었다. 의식의 지면 한 켠에 무거운 관념의 늪이 생겨 내 자아는 서서히 침잠했다. 어른으로서 내 모습이 결국 어린이가 보고 배우는 세상이자 미래의 모습이라는 작가의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옹크려 앉던 명치를 아프게 두드렸다. 난 좋은 어른이었을까, 라는 자학적 물음은 작열감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부끄러움의 구덩이로 나를 밀어 넣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제2의 가정이나 다름없고 교사는 아이들의 보호자이자, 본보기가 되어야 할 존재다. 그동안 나는 아이들에게 냉철한 지식 전달자로서만 존재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옥독한 시절이라고 해도 결국 길을 만들고 아이들을 돌보는 좋은 어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129p) 왜 나는 여태껏 깨닫지 못했던 걸까.

학교에는 가정 내의 차가운 기류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이 존재한다. 집을 벗어난 공간에서 사람들과 섞여 마음의 안정을 얻고 위로를 얻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난 그들을 포근히 감싸주었는가, 아니면 관심 밖의 매몰찬 시선을 던졌는가. 아이들의 날개뼈 언저리에 나 있는 하얀 날개뼈 더러운 세상의 얼룩을 묻힌 건 결국 내가 아니었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다. 한없이 부드럽고 순수한 그 나래에 잿빛과 좌절의 물기를 적셔 그들이 창연한 허공을 향해 날아갈 수 없도록 발을 묶었던 건 결국 내가 아니었나, 하는 자조의 마음도 찾아왔다.

<어떤 어른>을 다 읽고 난 후, 나의 상념에 기쳑을 한 것은 알 수 없는 먹먹함이었다. 몇 분 동안의 고요와 침묵이 지나갔고 결국은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학고한 결심의 문을 열었다. 어린이들이, 나아가 청소년들이 높이 날아올라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원대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나는 그들을 조력해야 함을 깨달았다. <나의 아저씨> 속 동훈처럼 세상에는 아둑한 그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너머엔 따스한 빛이 버젓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어른들이 있었음을 떠올렸다. 나약했던 어린 시절, 내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어른이 되어 보기로(132p), 아이들은 어른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온다는 사실을 가슴에 묵직하게 새겼다. 아이들과 나란히 풀꽃 내음새가 물큰하게 풍기는 대지를 걷는 순간을 상상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젊은 엄마에게>에는 다음과 같은 시구가 등장한다.

그렇지, 아기는 / 또 하나의 지구 / 또 하나의 우주 /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의 총합

나태주 시인이 내품기는 사유와 인식은 섬세한 입자가 흩날리는 공감의 안개 속으로 나를 밀어 넣었다. 비단 아기뿐이라. 자라나는 아이 역시 또 하나의 지구, 또 하나의 우주이자 세상 모든 것들의 총합이다. 그 좋은 것을 지켜주는 것이 좋은 어른의 거룩한 사명이자 신성한 역할인 것이다. 김소영 작가나 나태주 작가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풍부한 사람이 말하는 봄빛 언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삶의 본질을 깨우친 어른들이 건네는 따스한 손길을 맞잡아야 한다. 독서란 결국 작가와 독자와의 깊은 교감이다. <어떤 어른>은 무기력한 지금의 내 모습을 겸연쩍게 만들었고 미래를 향한 용기를 주었다.

<나의 아저씨> 속 지안의 고백처럼 좋은 사람을 만드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잘하라는 말보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139p)을 더 많이 들려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 뿌리의 힘을 믿는다. 음침한 지면을 뚫고 나와 하늘을 향해 연약한 줄기를 뻗쳐 한 떨기 향기 나는 봉우리를 피워내는 단단한 뿌리가 되고 싶다. 아이들의 마음을 잣벌거나 함부로 꺾는 어른이 아닌, 아이라는 투명한 꽃을 피워내는 뿌리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 열 마디 날 선 잔소리보다, 투명하고 따스한 웃음과 위로의 양분을 건네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다.

아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없어 바깥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찬피동물과도 같다. 아이들의 주변에 누가 존재하고, 어떤 삶을 맞닥뜨리냐에 따라 그들의 일상엔 다양한 색채나 변화무쌍한 체온이 더해진다. 난 그들에게 어떤 색깔과 온도를 덧입힐 수 있을까. 그놈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어 학교는 안전하다고, 학교는 좋은 곳이길 바라는 작가의 바람은(172p) 출근길의 신선한 대기 속에 섞여 내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등굣길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과 인사를 선물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그리고 어른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인부 장려상

광주광역시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2025 책읽는 동구 **블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집을 매개로 한 마음들의 이야기

도서명 축복을 비는 마음
지 역 김혜원 광주 (동구)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인선과 경욱이 함께 듣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건아들의 '젊은 미소'라는 곡을 찾아 들어 보았다. 노래를 들으며 소설의 여운을 가만히 느껴 보았다. 83년도의 노래가 이토록 마음을 울리다니,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흘러나오는 OST를 듣고 있는 기분이었다.

김혜진 작가는 집에 관해 그동안 써 놓은 소설들을 묶어 소설집을 내었다. 8편이나 되는 소설의 공통 화두가 집이라니, 왜 이렇게 집에 대해 집착 아닌 애착을 지니고 있었을까? 작가는 이 책이 집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단지 집이라는 공간을 두고 그곳에 존재하는 여러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밝힌다. 그래서 나 역시 작가의 의도대로 집을 둘러싼 여러 마음들의 이야기에 집중했고, 더불어 이 마음들이 맺는 관계에도 충위란 것이 존재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았다.

임대동에 사는 사람과 분양동에 사는 사람의 마음의 층위는 같은 층에 있을까? 임대동에 지내는,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닌 친구 집에 잠시 머물러 있는 미애는 친절과 배려가 배어 있는 분양동에 사는 선우를 선망한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플라스틱 섬에 사는 북극곰을 걱정하며 어려운 사람을 기꺼이 돕고자 하는 선우. 당장 이사할 집조차 구하지 못하고 200만 원이 없어 취조받듯 대출받아야 하는 미애에게 그런 선우는 하늘에서 떨어진 동아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고작 30분 남짓한 사소한 사건으로 이들의 관계는 쉽게 끊어진다. 그들의 마음은 높낮이가 달라서 우위에 있는 쪽에서 놓아버린 줄은 아래쪽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위쪽으로 다시 보낼 수가 없다.

재개발을 기다리며 빛을 내 겨우 목화맨션 101호를 마련한 만옥과 그런 101호에 세 들어 사는 순미. 세입자와 집주인이라는 집으로 맺어진 그들의 관계는 무려 8년의 세월이나 이어진다. 알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그들의 마음은 친자매처럼 친근하고 끈끈하게 맺어지는 듯 보인다. 하지만 '돈 주고 산다고 다 자기 집이 되나요?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살아봐야 알아요.'라는 전 주인의 말이 문득 떠오를 때쯤 만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목화맨션을 팔기로 마음먹고, 세입자인 순옥은 그곳을 떠나게 된다. 첫 만남에 맛있게 먹었던 냉면과 달리 그들이 함께한 마지막 식사인 국수는 잘 먹히질 않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주택들을 떠올리며 만옥은 다른 무언가도 무너졌음을 느낀다. 낡고 오래된 목화맨션을 지키며 그나마 얻었던, 소중하게 지켜왔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은 아닐까.

'미애'나 '목화맨션', 그리고 '이남터미널'에서 서로 다른 층위에 있는 마음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면 '산무동 320-1번지'는 그보다 더 세밀하게 나눠진 관계를 보여준다. 진짜 집주인인 정 선생과 그녀의 잡다한 일을 맡아주며 같은 세입자이면서도 다른 세입자의 월린 월세를 독촉하는 호수 엄마의 관계는 마치 현대판 지주와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마름의 관계처럼 느껴졌다. 위와 아래 어느 층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그 마음이 악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 역시 자신의 처지에서 그것이 최선이기에 살기 위해서 죽을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미래'는 집을 둘러싼 마음의 층위를 보여주기보다는 집이 그 집에 머무는 사람에게 주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든다. 주인에게 있어서 집은 이렇다 할 굴곡 없이 편안함과 익숙함을 주는 곳이었다. 하지만 마크를 만나고 사랑하고 함께 자내면서 집은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다. 들뜬 흥분도 열기도 없이 텅 빈 적막한 집이 가끔은 그립지만, 주인은 곧 깨닫게 된다. '어떤 시절에 내가 머물렀던 집들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단련시키며 기꺼이 나의 일부가 되었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마침내 그런 집을 찾게 된 것을 말이다. 그런 주인을 생각하며 그동안 내가 머물렀던 집들 중에 나에게도 그런 집이 있었는지를 오래오래 곱씹어 보았다.

"축복을 비는 마음"은 집을 매개로 한 여러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소설집이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는 마음,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 20세기 같은 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집 하나를 갖겠다는 마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 미래를 그리는 마음, 그리고 마침내 축복을 비는 마음까지. 작가는 여러 마음 중에서도 독자들에게 축복을 비는 마음을 가장 보여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일 많이 생기시라는'인선의 말처럼 '젊은 미소'의 '너와 나의 젊은 미소 밝은 내일 악속하리라'는 노랫말처럼 말이다.

나는 책을 덮으며 한참을 소설 속 여러 마음들을 되짚어 보았다. 수많은 마음들이 같을 수는 없다. 서로 다른 마음들이기에 마음 사이에는 층위도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마음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 소설 속 대부분의 마음들이 절박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놓고 있지 않듯 현실 속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소설 속 여러 마음들을 떠나보내며 내 마음은 어떠한지 온전히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보기로 한다.

성인부 장려상

광주광역시동구 민문도시 광주 동구

2025 책읽는 동구 **블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도서명 어떤 어른
지 역 전현수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0제부터 형이라고 부를게. 결혼 축하해" 농담을 핑계 삼아 두 살 어린 회사 동생에게 던지는 한마디. 비루한 나의 패배 선언과 다름없었다. 어릴 적부터 머릿속에 그려왔던 진짜 어른의 환상. 이것에 닿기 위해 발버둥 쳐온 지난 세월에 대한 냉소적인 자화상이었다.

내가 꿈꾸던 진짜 어른의 모습은 단순히 나이만 먹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사회가 공고히 세워놓은 수많은 관문을 뚫고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훈장이었다.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외모와 안변, 좋은 대학의 이름표, 안정적이고 든든한 직장, 매월 통장에 꽂히는 높은 월급, 전용 84㎡ 브랜드아파트, 부모님의 노후 준비, 미디어와 일상의 담론을 통해 끊임없이 주입해 온 완벽한 어른의 초상이었다.

차안대를 낀 경주마처럼 진짜 어른이 되겠다는 믿음 하나로 앞으로만 내달렸다. 학점과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외 활동을 통해 스펙을 쌓았다. 숱한 밤을 새워가며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봤다. 월급을 아껴 미래에 투자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목표에 다가섰다고 생각했을 때,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발버둥 쳐서 다다른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이미 출발선이었다. 대대로 이어져 온 배경, 태생적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을 얻기 위해 피땀 흘려야 했고, 젊음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연애와 결혼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렇게 덜어버린 나는 진짜 어른의 이상과는 점점 멀어져 갔다. 결국 사회가 규정한 진짜 어른은 나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었다. 태생적 한계와 시간의 무게에 짓눌려 포기할 수밖에 없는 허상이 되고 말았다. 그저 그렇게 나이만 먹은 어른 아닌 어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리라 체념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김소영 작가의 『어떤 어른』을 만났다.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나의 내면에 자리 잡은 좌절과 패배감을 섬세하게 아우만졌다. 나는 지금까지 어른이라는 의미를 성취와 소유 같은 외적인 기준으로만 좁게 이해했다. 돈을 벌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남들 보기에 번듯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성공한 어른,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어른』은 이런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어른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조용히 속삭였다.

작가는 독서 교실을 운영하며 만난 아이들의 성장을 담담히 지켜보는 과정을 통해, 삶으로 진정한 어른의 덕목을 보여줬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언젠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고백하며 그는 아이들을 위한 자신의 자리를 조용히 지켜냈다. 좋은 어른의 삶을 통해 어른 다운 어른의 진면목을 배웠다. 이것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감.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미덕임을 역설했다. 책을 읽는 동안 내 마음속 응어리져있던 패배감은 스러지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스며들었다. 『어떤 어른』을 통해 진짜 어른이 아닌 좋은 어른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알려주었다.

솔직히 말해 지난 삶을 오직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투였다. 양극성정동장애를 겪는 아버지. 외도하며 정서적 학대하는 어머니. 생활보장대상자의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남을 돌볼 여유가 어디 있어?'라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었다. 그러나 『어떤 어른』을 읽으며 개인의 성취를 넘어선 사회적 역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 대한 어른의 책임감을 강렬하게 일깨웠다. 이것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회라는 거대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이. 우리 뒤를 이어 세상을 살아갈 젊은 세대 전체에 관한 관심과 기여의 중요성을 말해주었다.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진짜 어른이 자기중심적인 목표 달성과 만족에 그쳤다면, 책이 얘기하는 좋은 어른은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실질적인 도움을 건네는 존재였다.

그들의 다정함은 제스처가 아니라 본연의 태도였다. 다정한 눈빛은 말 없는 위로가 되었고, 다정한 손길은 삶의 균열을 메우는 봉제선이었다. 진정한 어른이란 직접 나서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머물며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도울 준비가 된 사람임을 배웠다. 차갑게 굳은 나날 속에서도 온기를 지켜 다른 이에게 나누는 일. 이제 나는 홀로 맞이할 노후를 준비하며, 물질의 안온을 넘어 그 온기를 건네려 한다. 비록 내가 꿈꾸던 완성된 어른과는 다를지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눈앞의 성공과 명예를 좇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 갈림길에 선 아이들이 비틀거릴 때, 그 신음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는 지지대가 되고자 한다. 올바른 가치와 작은 지혜를 나누고, 때로는 숨을 고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다. 관심사는 더 이상 나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돕기 위해 상담심리를 공부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복을 돕는 역량을 기른다. 한때 진짜 어른에 못 미친다는 좌절에 머물렀던 나는, 어제면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